

재일(在日)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 경영특성*

고 광 명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E-mail : kkm0630@jejunu.ac.kr

접수일: 2010년 8월 30일, 수정일: 2010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16일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에 따른 경영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 제주인 기업가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 하에서 직종 차별에 따른 생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들을 설립하였으며, 1970년 이후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일 제주인 기업가는 일본으로 이주한 1세대인 경우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수행했지만 1970년 이후 개인경영에서 법인회사로 경영형태가 변화되면서 대규모 자본금을 갖고 기업을 설립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일 제주인 기업가는 이주초기 신발, 가방, 플라스틱, 봉제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경영활동을 수행했고 최근에 들어 업종 전환이나 다각적 경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일 제주인 기업가는 1960년 전후 기업규모가 작아 매출액이 저조하였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재일 제주인 기업가는 종업원 수가 적은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는 개인경영이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 기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법인회사 경영형태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5-B00012).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재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은 설립 자본금과 업종보다는 설립시기, 연간 매출액, 기업규모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일 한인 기업가가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재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도 점차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재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 경영특성

I. 머리말

올해 2010년은 1910년 8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한반도를 36년간 강제적으로 지배하면서 해방 전후를 계기로 많은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오게 했다.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도민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제주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2009년 기준 현재 재일 제주인은 재일 한인 589,239명 중 93,162명으로 약 15.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일 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入管協會, 1999).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징용, 징병 등 강제적으로 이주(involuntary emigration)되거나 1945년 광복 이후 4·3사건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출가해녀(出稼海女)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 중 남자들은 조선, 탄광, 토목 등에 단순노동으로 투입되었고, 여자들은 주로 방적공장에서 일하면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노동에 시달려만 했다. 결국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 야쿠자(役者), 파친코(パチンコ), 야키니쿠(焼肉), 화학제품 관련 등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주로 종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 이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사회·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항상 곤란한 상황에 직면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 제주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고자 문중, 마을, 학교 등 여러 형태의 친목 단체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재일 제주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유는 일본 사회 속에서 정신적 지주와 애향심, 그리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재일 한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다(고광명, 2008: 187~210).

이중 재일 제주인 기업가들은 방적(紡績)공업이 발달했던 오사카를 근거지로 삼아 상공업활동을 비롯하여 고무, 유리, 유지, 피혁, 섬유, 잡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나가면서 소규모 자본을 축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고무공업은 생산설비가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먼저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1949년 후반부터 일본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형 제조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고무공장이 점차 소멸하게 되었다. 이후 재일 제주인들은 과거 가내수공업을 통해 모은 재력을 바탕으로 음료, 유기업, 대중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특히 파친코 산업은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자금 회전이 빨라 사업기반이 취약한 이들에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2005: 60~61).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 건너가 어려운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굴지의 기업을 창업시킨 기업가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주 초기에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 신발공장, 봉제업 등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본을 형성해 왔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1세 기업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지금은 2~3세들이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기분야에서 독특하게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학, 단기 체류, 비즈니스, 비합법적 노동자 등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재일 한인들과 구별되는 뉴커머(newcomer)가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일 제주인 기업가를 수록한 공동신문사(共同新聞社, 1989) 『재일한국인실업명감』(在日韓國人實業名鑑) 자료 등을 통하여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에 따른 경영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¹⁾ 여기에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재일 제주인 기업가를 유

형별로 분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자료상에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밝힌 내용을 통해 기업가의 창업동기 및 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재일 제주인 기업가와 제주도와 관계가 형제를 기반으로 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재일 제주인 기업가를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일 제주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연구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에 따른 경영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일 제주인의 의미

재일 제주인의 의미란 재일동포²⁾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며, 일시 체류, 영주권자, 유학, 2세와 3세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출신들을 지칭하

- 1) 박 일(朴 一, 2002)은 재일 한인의 역사, 법적지위, 민족교육, 정체성 등에 관한 문헌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량 출판되었는데, 재일 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서 일본관청의 공식통계에는 서구유럽과 같은 이민 기업이나 이민 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단일민족 사상을 고수해 온 일본정부가 국내의 인구통계나 경제통계를 민족이나 민족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재일 한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이나 경제활동 등이 공식통계로부터 분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朴 一, 2002: 247-251).
- 2) 정호승(2007)에 따르면, 해방이전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교포(僑胞)가 아니라 동포(同胞)이다'라고 주장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조국을 떠난 이들을 교포라고 부른다면, 타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조국을 떠난 이들은 동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는 재일동포를 재일교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가 재미교포를 재미동포라고 부르지 않듯이 재일동포를 재일교포라고 불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조국을 언제 어떻게 왜 어떤 형편에서 떠나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생각되기 때문이다(김남일 외, 2007: 184).

는 용어들은 제주출신 재일동포, 제주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출신자, 제주출신 재외교민, 교민사회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재일(在日)’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또는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재일 한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尹健次, 2002).

현재 재일 제주인의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일 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 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지역출신자에 비해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재일 제주인은 1925년 당시 다른 지역출신의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쿠노구(生野區)에서 ‘섬놈’이라는 이유로 멸시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사회에서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이들은 ‘아리랑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제주도 출신들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주출신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재일 제주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둘째, 재일 제주인은 일본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제주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이면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일본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재일 한인 사회의 세대교체도 착실히 진행되는 가운데 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고, 민족교육을 받는 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중에 일본국적 취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일 한인을 포함한 재일 제주인은 바야흐로 국적이나 혈연, 의식 상태나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복잡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재일 제주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도(道) 단위보다는 마을(里·洞) 단위의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일본사회에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문중, 학교, 마을 등 여러 형태의 친목단체와 같은 비공식조직을 잘 형성하면서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속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본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의 기제로써 활용되어 재일 제주인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휘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넷째, 재일 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동일한 입장의 재일 한인 중에서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가치체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제주도 출신자가 일본사회에서 생활하여 온 타 지역 출신자와 교류가 있고, 일본인보다는 가치 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수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 출신자 속에서도 2·3세는 소위 재일 한인으로서 타 지역 출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본국의 유교적 사고를 흡수하여 개념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이 전달되어 가부장제적 사고가 강하지 않아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高鮮徽, 1996: 138).

따라서 재일 제주인의 의미는 일본사회 속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재일 제주인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일 제주인 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하면서 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에 따라 어떠한 경영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재일 한인 연구는 이주의 역사적 배경, 법적지위, 아이덴티티 문제, 개인 생활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재일 한인의 경영특성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규상(吳圭祥, 1992)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 상공인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일 조선인의 역사, 상공업활동이나 경영활동의 흐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일 조선인의 제 문제를 비롯한 상공업활동 분석과 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吳圭祥, 1992: 3-7). 강 성(姜 誠, 1996)은 1995년 12월 기준으로 일본 전국의 파친코 점포수가 1만 8,244개이었지만, 한개 업자가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6,000

개~8,000개로 추정하였다. 그는 재일 한인들이 파친코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로서 ‘국적차별에 의한 취직차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위신이 낮아 일본기업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3D 업종이나 틈새시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姜 誠, 1996: 152-155). 변진일(邊真一, 2000)은 재일 한인들이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재일 한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야키니쿠나 파친코와 같이 일본사회의 주변산업에서 차별받고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인들보다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평가하였다(邊真一, 2000: 20). 김미덕(金美德, 2002)은 재일 코리안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가 많고 경영자원에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면 승부보다는 틈새나 기습전법 또는 상식파괴 등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앞으로 이들이 정면 돌파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기술개발과 신선한 발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金美德, 2002: 34). 박건시(朴健市, 2002)는 재일 한인 기업 중에 파친코산업이 가장 주요한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친코 점포뿐만 아니라 파친코 대(臺)를 만드는 파친코 제조메이커가 거대산업을 형성하고 있고, 약 70% 이상이 재일 한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朴健市, 2002: 201). 지동욱(池東旭, 2002)에 의하면 재일 한인들은 파친코 등의 유기업, 고리대금업을 포함한 금융업 및 부동산업, 그리고 음식업 등 3대 업종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池東旭, 2002: 33). 오민학·김철수(吳民學·金哲秀, 2002)는 일본 통계청 국세조사보고를 이용하여 재일 한인의 상공인 수와 취업자 수를 추측하여 재일 한인의 취업자별 인구를 산업별·고용형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일 한인 사회의 산업구조와 주력업종을 파악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吳民學·金哲秀, 2002: 18).

이 외에도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재일 한인 기업가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명생(河明生, 1996; 1998)은 재일 한인 1세 조선인의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노리티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하였으며(河明生, 1996: 59-78), 이어서 재일 한인 1세와 재일 한인 2·3세

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마이노리티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한 바 있다(河明生, 1998: 50-74).³⁾ 특히 하명생(河明生, 2003)은 재일 코리안 기업가의 활동을 유교적 가치관인 ‘금의환향’의 기업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재일 코리안 기업가의 금의환향 지향은 한민족적 소양이 높은 재일 한인 1세 기업가들의 지향성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재일 한인 1세들은 일본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달성한 후 본국투자나 고향에의 물질적인 공헌에 의해 금의환향을 실현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재일 코리안 1세들은 본국의 풍토, 풍습, 언어 등에 익숙하고 금의환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河明生, 2003). 임영언(林永彦, 2004)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뉴커머 기업가 조사를 통해 그들의 창업활동이 어떠한 자본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가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林永彦, 2004). 임영언 외(2006)는 일본 현지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문헌조사와 면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민족자산인 재일 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해 파악하였다(임영언 외, 2006: 33-35).⁴⁾ 최석신 외(2005)는 주로 문헌조사와 일본 현지에서의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일 코리안 소비패턴과 소득규모, 산업구조, 주력업종 그리고 한국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재일 코리안 자영업자들의 경제 환경과 실태를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였다(최석신 외, 2005:

- 3) 하명생(河明生, 1996; 1998)에 따르면 초기 재일 코리안 기업가들은 저임금노동력을 존재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노동자로서 종사하면서 기술과 노하우, 자본을 축적하고 소규모자영업에서 기업가로 발전하여 간다는 가정 하에서 재일 코리안 1세 기업가들을 독립형과 전업형(기존산업 전업형, 미지산업 전업형, 모방 전업형) 등으로 분류했다. 또한 그는 재일 코리안 2, 3세의 기업가활동에 대해서 신독립형(전통산업 독립형, 신산업 독립형), 신전업형(신모방 전업형, 신미지산업 전업형), 개척형 등으로 유형화했다.
- 4) 임영언(林永彦, 2008)은 일본에서 재일 코리안 기업가의 창업유형에 대해 생계형, 권유형, 계승형, 재능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재일 코리안 기업가의 창업동기에 의한 유형화는 상호배타적인 분류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지만 복수의 창업동기를 갖는 기업가의 경우 기업가 스스로가 창업할 때 어떠한 동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비교적 객관적 분류라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뉴커머를 포함한 재일 코리안 기업가의 다양한 창업동기를 분석하는 과거 지향적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개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유형별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임영언·이석인(林永彦·李錫寅, 2006), “재일 코리안 기업가의 창업유형별 특징 및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382-402.

7-9). 김태영(金泰永, 2005)은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본 사회에서 정착한 재일 한국인 기업가의 성장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더욱이 재일 한국인 집단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재일 한국인 기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기업가정신은 모두 탈(脫)에스닉(ethnic)화가 진전되고 있고, 탈에스닉적 비즈니스 활동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金泰永, 2005: 1-26). 고광명(2006)은 일본사회에서 재일 제주인의 직종을 파악하고 상공업활동의 특성을 해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사회와 재일 제주인 사회간의 생산적인 교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고광명, 2006: 171-195.). 임채완 외(2007)는 재일 한인 기업가 및 기업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재일 한인 기업의 네트워크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재일 한인들이 조직화하여 형성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사례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임채완 외, 2007: 33-36). 고광명(2009)은 일본 사회에서 재일 제주인 기업가가 어떠한 경영활동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들은 이주 초기에 가방, 고무공장 등 영세제조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파친코, 야키니쿠, 건설업, 부동산업 등 일본 회사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고광명, 2009: 293-313). 양경희(梁京姬, 2009)는 재일 한국인 기업가들이 본국에 투자한 신한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및 금융업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소수민족으로서 일치단결하여 끊임없는 도전정신에 의해 성공을 이끈 사람들로써 본국의 금융 서비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재일 한인 기업가의 도전정신, 그리고 신한은행의 조직문화 및 경영방식 등이 향후 한국사회에 계승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梁京姬, 2009: 16-30).

따라서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재일 한인 기업가의 경영특성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 경영특성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출신과 대비되는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에 따른 경영특성을 고찰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일일보사(統一日報社)의 『재일 한국인명록』(在日韓國人名錄, 1975)과 통일일보사 『재일 한국인기업명감』(在日韓國人企業名鑑, 1976), 김부환(金府煥, 1977)의 『재일 한국인사회소사(대관편)』[在日韓國人社會小史(大阪編)], 鶴岡正夫(1981) 및 공동신문사(共同新聞社, 1989)의 『재일한국인실업명감(관서관)』[在日韓國人實業名鑑(關西版)] 그리고 재일한국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재일 한국인회사명감』(在日韓國人會社名鑑, 1997)과 永野慎一郎(2010)이 펴낸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 한국인의 역할』(韓國の經濟發展と在日韓國企業人の役割), 그리고 각종 신문자료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는 공동신문사(共同新聞社, 1989)가 발간한 『재일한국인실업명감(관서관)』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고 있다. 이 자료에 수록된 기업가는 약 2,500명(大阪府 약 1,500명, 京都府 약 400명, 兵庫縣 약 600명)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 한인 기업가 중 일본 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제주도 출신자 기업가 562명(大阪府 523명, 京都府 8명, 兵庫縣 31명)을 우선 추출한 후, 기업가 유형과 관련된 내용 등 경영활동 관련 자료가 양호한 81명(大阪府 80명, 兵庫縣 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에서의 누락으로 인해 분석에서 탈락된 경우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에 따른 경영특성과 관련된 기본 정보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목별 자료가 미비한 기업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본고에서 이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첫째, 1910년 이전부터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주요 재일 제주인 기업가가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특성 요인을 시계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일 제주인 기업가(81명)를 조사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시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특성으로서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일 제주인 기업가 별 내용이 설립년도, 설립자본금, 업종, 연간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조사 자료는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섯 가지 표본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우선 기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명목척도로 측정된 자료임을 밝혀둔다.

2. 연구방법

본 자료는 원래 기업가(81명) 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을 데이터용지(Data Sheet)로 전기하여 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에 따른 경영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와 같은 기본정보 이외에 보다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재일 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특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에 수록된 모든 경영활동과 관련한 수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Coding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재일 제주인 기업가의 목록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81명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인을 포함한 설립시기, 자본금, 업종,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가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0.0 version이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45년 이전부터 1989년까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주요 재일 제주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섯 가지 경영특성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기업가 유형인 경우는 분석대상 기업가에 따라 I유형(생업 + 개인경영), II유형(전업 + 법인경영), III유형(사업 + 전향), IV유형(가업 + 계승) 등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명목척도로 변환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재일 제주인 기업가와 관련하여 프로파일에서 많이 표현되거나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였다.⁵⁾ I유형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금까지의 직업경험을 살려서 개인경영

5) 본고에서 기업가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하명생(河明生, 1996; 1998; 2003)과 임영언(2006) 등의 논문을 참고로 해서 공동신문사(1989)의 프로파일에서 본인이 직접 사업 동기나 과정 등을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형태로 창업한 경우이다. II유형은 기존기업이나 가족기업 혹은 주변의 친척들과 함께 법인회사 형태로 창업한 경우이다. III형은 기존의 직업이나 직장 경험, 경영 노하우, 전문적인 기술, 실무경험 등을 살려서 창업한 경우이다. IV유형은 1세들의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계승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경영특성 항목과 관련하여⁶⁾ ① 설립 시기인 경우는 1950년 이전, 1960~1969년, 1970~1979년, 1980년 이후와 같이 4개로 구분하였다. ② 설립 자본금인 경우는 1,000만 엔 이하, 1,000만 엔~1,999만 엔, 2,000만 엔 이상과 같이 3개로 구분하였다. ③ 업종인 경우는 건설, 제조, 상사·도매업, 소매·판매, 금융·증권·보험, 부동산, 운수, 정보서비스, 기타(다 업종)와 같이 10가지로 구분되었으나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④ 연간매출액인 경우는 1억 엔 이하, 1~5억 엔, 6~10억 엔, 10억 엔 이상과 같이 4개로 구분하였다. ⑤ 종업원 수인 경우는 10명 이하, 10~49명, 50명 이상과 같이 3개로 구분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특성

<표 1>에서 제일 제주인 기업가의 표본특성을 살펴보면, 설립 시기는 1960~1969년이 26명(32.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59년 이전 23명

6) 본고에서는 『제일한국인실업명감(관서관)』에 기재된 성명, 통명, 직위, 회사명, 소재지, 성별, 생년월일, 본적, 프로필, 거래은행, 업종, 설립, 자본금, 매출액, 사업내용, 특색 및 최근 현황 등의 내용 중에서 제일 제주인 기업가와 관련되어 자료가 양호한 5가지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임영언 외(2006)는 경영형태, 소유형태, 기업의 존속연수, 업종 및 주력산업, 기업규모, 재일동포 채용이유 등을 중심으로 경영특성을 파악하였다. 하명생(1996; 1998; 2003)은 세대구분, 업종 등의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삼아 문헌고찰을 통해 기업가 유형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임영언(2006)은 뉴커머를 포함한 제일 코리안 기업가의 다양한 창업동기를 분석할 수 경영특성(창업동기, 세대구분, 업종 등)을 통해 유형화를 제시하고, 자료 수집을 통해 유형별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28.4%), 1970~1979년 18명(22.2%), 1980년 이후 14명(17.3%)으로 나타났다. 설립자본금은 1,000만 엔 이하 33명(40.8%), 2,000만 엔 이상 27명(33.3%), 1,000만 엔~1,999만 엔 21명(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이 49명(60.5)으로 가장 많고, 비제조업 32명(39.5%)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5억 엔이 32명(39.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억 엔 이상 28명(34.6%), 6~10억 엔 11명(13.6%), 1억 엔 미만 10명(12.3%)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10~49명 46명(56.8%), 10명 이하 20명(24.7%), 50명 이상 15명(18.5%)순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 특성

(단위 : 명, %)

구분	항목	N	빈도	구분	항목	N	빈도
설립 시기	1959년 이전	23	28.4	업종	제조업	49	60.5
	1960년~1969년	26	32.1		비제조업	32	39.5
	1970년~1979년	18	22.2	자본금	1,000만 엔 이하	33	40.8
	1980년 이후	14	17.3		1,000~1,999만 엔	21	25.9
			2,000만 엔 이상		27	33.3	
매출액	1억 엔 미만	10	12.3	기업 규모	10명 이하	20	24.7
	1~5억 엔	32	39.5		10~49명	46	56.8
	6~10억 엔	11	13.6		50명 이상	15	18.5
	10억 엔 이상	28	34.6				

2. 재일 제주인의 기업가 유형별에 따른 경영특성

1) 설립 시기별 특성

<표 2>는 재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에 따른 설립시기별 특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 유형의 기업가들은 1959년 이전과 1980년 이후에 설립된 경우(각각 2.5%)가 다른 시기에 설립된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II 유형의 기

업가들은 1960년~1969년에 설립된 경우(16.0%)가 다른 시기에 설립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III유형의 기업가들은 1970년~1979년에 설립된 경우(9.9%)가 다른 시기에 설립된 경우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IV유형의 기업가들은 1959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14.8%)가 다른 시기에 설립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제일 재주인 기업가들은 1960년을 전후로 경영환경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기업가 유형에 따른 설립 시기별 특성

기업가 유형	설립 시기별 분류				
	1959년 이전	1960년~1969년	1970년~1979년	1980년 이후	합계
I 유형(n=6)	2(2.5%)	1(1.2%)	1(1.2%)	2(2.5%)	6(7.4%)
II 유형(n=30)	6(7.4%)	13(16.0%)	8(9.9%)	3(3.7%)	30(37.0%)
III 유형(n=20)	3(3.7%)	3(3.7%)	8(9.9%)	6(7.4%)	20(24.7%)
IV 유형(n=25)	12(14.8%)	9(11.1%)	1(1.2%)	3(3.7%)	25(30.9%)
합계	23(28.4%)	26(32.1%)	18(22.2%)	14(17.3%)	81(100%)

주 : 카이제곱=20.029, p=0.018

2) 설립 자본금별 특성

<표 3>은 제일 재주인 기업가 유형에 따른 설립 자본금별 특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 유형의 기업가들은 1,000만 엔 이하인 경우(4.9%)가 1,000만 엔 이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II 유형의 기업가들은 1,000만 엔 이하의 경우(16.0%)가 1,000~1,999만 엔과 2,000만 엔 이상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III 유형의 기업가들은 설립자본금 규모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않았고, IV 유형의 기업가들은 2,000만 엔 이상인 경우(13.6%)가 1,000만 엔 이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제일 재주인 기업가들은 1,000만

엔 이하인 소규모 자본으로 경영하다가 사업이 확대되면서 설립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기업가 유형에 따른 설립 자본금별 특성

기업가 유형	설립 자본금별 분류			
	1,000만 엔 이하	1,000~1,999만 엔	2,000만 엔 이상	합계
I 유형(n=6)	4(4.9%)	1(1.2%)	1(1.2%)	6(7.4%)
II 유형(n=30)	13(16.0%)	9(11.1%)	8(9.9%)	30(37.0%)
III유형(n=20)	7(8.6%)	6(7.4%)	7(8.6%)	20(24.7%)
IV유형(n=25)	9(11.1%)	5(6.2%)	11(13.6%)	25(30.9%)
합계	33(40.7%)	21(25.9%)	27(33.4%)	81(100%)

주 : 카이제곱=3.966, p=0.681

3) 업종별 특성

<표 4>는 제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에 따른 업종별 특성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 기업가 유형에 따른 업종별 특성

기업가 유형	업종별 분류		
	제조업	비제조업	합계
I 유형(n=6)	5(6.2%)	1(1.2%)	6(7.4%)
II 유형(n=30)	14(17.3%)	16(19.8%)	30(37.0%)
III유형(n=20)	10(12.3%)	10(12.3%)	20(24.7%)
IV유형(n=25)	20(24.7%)	5(6.2%)	25(30.9%)
합계	49(60.5%)	32(39.5%)	81(100%)

주 : 카이제곱=10.311, p=0.112

I 유형의 기업가들은 제조업인 경우(6.2%)가 비제조업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낸 반면, II 유형의 기업가들은 비제조업인 경우(19.8%)가 제조업인 경우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III 유형의 기업가들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인 경우(각각 12.3%)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IV 유형의 기업가들은 제조업인 경우(24.7%)가 비제조업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제일 제주인 기업가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영하다가 가업계승으로 인해 비제조업 분야로 경영다각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4) 매출액별 특성

<표 5>는 제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에 따른 매출액별 특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기업가 유형에 따른 매출액별 특성

기업가 유형	연간 매출액별 분류				
	1억 엔 미만	1~5억 엔	6~10억 엔	10억 엔 이상	합계
I 유형(n=6)	3(3.7%)	3(3.7%)	0	0	6(7.4%)
II 유형(n=30)	1(1.2%)	14(17.3%)	7(8.6%)	8(9.9%)	30(37.0%)
III 유형(n=20)	3(3.7%)	8(9.9%)	0	9(11.1%)	20(24.7%)
IV 유형(n=25)	3(3.7%)	7(8.6%)	4(4.9%)	11(13.6%)	25(30.9%)
합계	10(12.3%)	32(39.5%)	11(13.6%)	28(34.6%)	81(100%)

주 : 카이제곱=20.006, p=0.018

I 유형의 기업가들은 1억 엔 미만과 1~5억 엔인 경우(각각 3.7%)가 동등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II 유형의 기업가들은 1~5억 엔인 경우(17.3%)가 6~10억 엔과 10억 엔 이상인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III 유형의 기업가들은 1~5억 엔과 10억 엔인 경우(9.9%, 11.1%)가 1억 엔 미만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IV 유형의 기업가들은 10억 엔 이상인 경우(13.6%)가 1~5억 엔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제

일 제주인 기업가들은 사업초기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했지만 기업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5) 기업 규모별 특성

<표 6>는 제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에 따른 기업규모별 특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기업가 유형에 따른 기업규모별 특성

기업가 유형	기업규모별 분류			
	10명 이하	10~49명	50명 이상	합계
I 유형(n=6)	4(4.9%)	2(2.5%)	0	6(7.4%)
II 유형(n=30)	7(8.6%)	20(24.7%)	3(3.7%)	30(37.0%)
III 유형(n=20)	6(7.4%)	10(12.3%)	4(4.9%)	20(24.7%)
IV 유형(n=25)	3(3.7%)	14(17.3%)	8(9.9%)	25(30.9%)
합계	20(24.7%)	46(56.8%)	15(18.5%)	81(100%)

주 : 카이제곱=12.189, p=0.058

I 유형의 기업가들은 종업원 수 10명 이하인 경우(4.9%)가 10~49명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II 유형의 기업가들은 종업원 수 10~49명인 경우(24.7%)가 10명 이하와 50명 이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III 유형의 기업가들은 10~49명인 경우(12.3%)가 10명 이하와 50명 이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IV 유형의 기업가들은 10~49명인 경우(17.3%)가 10명 이하와 50명 이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제일 제주인 기업가들은 조그마한 공간에서 개인경영 형태로 운영하다가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별에 따른 경영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일 제주인 기업가의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설립 시기는 1960년대 32.1%, 설립 자본금은 1,000만 엔 이하 40.8%, 업종은 제조업 60.5%, 매출액은 1~5억 엔 39.5%, 종업원 수는 10~49명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제일 제주인 기업가의 설립시기를 살펴보면, I·IV유형인 경우는 1959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II·III유형은 각각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설립된 경우가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 하에서 직종 차별에 따른 생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들을 설립하였으며, 1970년 이후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제일 제주인 기업가의 설립 자본금을 살펴보면, I·II유형인 경우는 1,000만 엔 이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III유형은 다른 자본금 규모와 비교할 때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IV유형은 2,000만 엔 이상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으로 이주한 1세대인 경우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수행했고, 1970년 이후 개인경영에서 법인회사로 경영형태가 변화되면서 대규모 자본금을 갖고 기업을 설립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제일 제주인 기업가의 업종을 살펴보면, I·IV유형인 경우는 제조업이 비제조업 보다 높게 나타났고, III유형은 동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II유형은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이주초기 신발, 가방, 플라스틱, 봉제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경영활동을 수행했지만 최근에 들어 업종 전환이나 다각적 경영을 시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제일 제주인 기업가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I 유형인 경우는 매

출액 1~5억 엔 이하가 많고, Ⅱ·Ⅲ유형은 1~5억 엔 이상인 경우가 많은 반면 Ⅳ유형은 10억 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60년 전후 기업규모가 작아 매출액이 저조하였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재일 제주인 기업가의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Ⅰ유형인 경우는 종업원 수 10명 이하가 높게 나타났으나 Ⅱ·Ⅲ·Ⅳ유형은 종업원 수 10~49명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종업원 수가 적은 소규모 형태인 개인경영이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 기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법인회사 경영형태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재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은 설립 자본금과 업종보다는 설립시기, 연간 매출액,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가 유형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일 한인 기업가가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재일 제주인 기업가 유형도 점차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결과들은 최근 재일 한인 기업가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한인사회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기업가 유형에 따라 재일 제주인의 자본형성 과정과 기업가활동을 파악하여 재일 한인 기업화 과정 모델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료의 소개 정도에 머물렀던 재일 한인 기업가들이 어떻게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마이노리티 기업가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재일 한인 기업가의 경영특성과 관련된 정부 기록과 민간의 연구물, 매스컴들의 보도기록들이 극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공식과 비공식 자료를 통해 연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넷째, 본 연구는 그간 마이노리티 기업가의 생애사적 연구가 경영사의 기업가사 연구로 인식하여 일방

적으로 성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신선한 접근방법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학제적 성격이 강한 주제로서 학문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재일 한인 연구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사회 속에서 재일 한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재일 한인 기업가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결국 이는 일본 사회 속에서 재일 한인 2세나 3세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한 경우도 다소 있었지만 대부분 1세들이 가족주의 경영을 통하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동신문사(1989)가 재일 제주인 기업가를 수록한 『재일한국인실업명감』 자료를 가지고 전개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다른 지역출신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일 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특성과 관련된 5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일 제주인 기업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지역출신자인 재일 한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재일 제주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1980년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재일 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 고광명(2006), “일본 속의 제주인의 직종과 상공업활동”, 『아시아연구』, 9(2): 171-195.
- 고광명(2008), “재일 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22: 188.
- 고광명(2009), “재일(在日) 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 『日本研究』, 12: 293-313.
- 金泰永(2005), “재일 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日本文化學報』, 27: 1-26.
- 김남일·서경식·양영희·정호승·최인석(2007),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영언 외(2005), 『재일 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 서울: 집문당.
- 임영언 외(2006), 『재일 코리안 기업가』, 서울: 한국학술정보.
- 林永彦·李錫寅(2006), “재일 코리안 기업가의 창업유형별 특징 및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382-402.
- 임채완·임영언·최석신·나주몽(2007), 『재일 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서울: 북코리아.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 최석신·임채완·백형엽·조성도·이석인(2005), 『재일 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서울: 집문당.
- 姜 誠(1996), 『5グラムの攻防戦ーパチンコ30兆円産業の光と影』, 東京: 集英社.
-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 關東地方を中心に』, 東京: 新幹社.
-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 金府煥(1977), 『在日韓國人社會小史(大阪編)』.
- 金美德(2002), 「日本のベンチャー企業と在日コリアン企業の比較研究」, 『同胞經濟研究』, 第5号(夏): 34.

- 朴 一(2002), 『在日コリアンの経済事情』 第11卷, 環: 247-251.
- 朴健市(2002), 「焼肉産業と在日同胞」, 『韓商連四十年史』, 東京: 在日韓国商工会議所.
- 梁京姬(2009), 「在日韓国人企業家が韓国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国朝鮮研究』, 第9号: 16-30.
- 永野慎一郎編(2010), 『韓国の経済発展と在日韓国企業人の役割』, 東京: 岩波書店
- 吳圭祥(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 東京: 雄山閣.
- 吳民学·金哲秀(1996), 「統計に見る在日朝鮮商工人数に関する研究」, 『同胞経済研究』, 第6号: 18.
- 入管協會(2009), 『在留外國人統計』.
- 在日韓國商工会議所(1997), 『在日韓國人會社名鑑』.
- 池東旭(2002), 『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 東京: 角川書店.
- 統一日報社(1975), 『在日韓國人名録』.
- 統一日報社(1976), 『在日韓國人企業名鑑』.
- 河明生(1996), 「日本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の起業者活動—在日一世朝鮮人の事例分析」, 『経営史学』, 30(4): 59-78.
- 河明生(1998), 「日本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の起業者精神—在日一世韓人と在日二・三世韓人との比較」, 『経営史学』, 33(2): 50-74.
- 河明生(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者精神 : 在日韓人事例研究』, 東京: ITA.
- 鶴岡正夫(1981), 『在日韓国人の百年—私の生活信条』, 東京: 育英出版社
- 辺真一(2000), 『強者としての在日』, 東京: ザ・マサダ.

<부록> 재일 제주인 기업가의 이력서

(단위 : 백만 엔, 억 엔, 명)

기업가	생년	출신지	학력	업종	설립 년도	자본 금	연간 매출 액	종업 원 수	경영형태	유형
康德贊	1942	서귀포시	建國高卒	C	1985	500	1	13	개인경영	I
姜吉略	1935	북제주군	關西大中退	I	1974	300	1.5	5	주식회사	III
康文男	1956	구좌	서울대中退	C, D	1955	2,350	30	100	주식회사	IV
康奉立	1945	표선	同志社大卒	C	1937	1,000	2.3	31	주식회사	IV
康奉洙	1931	표선	濟州農高卒	D	1970	100	2	20	유한회사	II
姜聖凡	1937	중문	同志社大卒	C	1948	10,000	65.9	110	주식회사	IV
康榮男	1943	구좌	五賢高卒	I	1979	500	1	7	주식회사	II
康祐成	1950	서귀포시	東京經濟大卒	C	1949	3,200	15	80	주식회사	IV
康隆彦	1954	표선	明治大卒	C	1955	8,100	150	300	주식회사	IV
姜在都	1939	서귀포시	立命館大卒	I	1971	1,100	1	11	주식회사	III
姜宗河	1940	한림	불명	C	1968	1,000	5	11	개인경영	III
康中彦	1927	서귀포시	同志社大卒	C	1954	500	1.5	5	개인경영	I
康仲鑑	1928	서귀포시	中央大卒	C	1972	1,200	1.1	11	주식회사	II
姜哲熙	1943	애월	建國高卒	G	1979	500	14	18	주식회사	II
康忠男	1926	표선	大阪專門學校卒	C	1955	8,100	150	300	주식회사	III
康太洙	1929	제주시	西野田高卒	D	1932	500	8	25	주식회사	II
康浩彦	1958	제주시	明治大卒	D	1932	500	8	25	주식회사	IV
康惠三	1943	표선	慶應大卒	C	1940	6,000	12	15	주식회사	IV
康洪基	1928	서귀포시	同志社大卒	C	1970	2,000	5	20	주식회사	II
高基秀	1934	구좌	早稻田大卒	E	1982	3,000	15	70	주식회사	II
高信夫	1947	제주시	建國高卒	C	1975	100	1.8	15	개인경영	I
高昌熙	1933	제주시	興國商高卒	C	1939	4,000	30	150	주식회사	IV
高春根	1932	제주시	關西學院大卒	D, G, H	1936	2,000	20	10	주식회사	II
高春鶴	1931	제주시	廣島大卒	C	1951	400	0.6	8	주식회사	IV
高行洙	1933	한림	浪速短大中退	C	1961	500	1	5	개인경영	I
金建宝	1950	조천	近畿大學	C	1930	2,000	2	20	주식회사	IV
金景玉	1922	구좌	東京工大中退	I	1971	200	1.8	20	주식회사	II
金庚熙	1940	구좌	商業高卒	C	1939	500	3.5	86	주식회사	II
金達孝	1925	성산	大朝門立中卒	H	1937	1,800	4.7	48	주식회사	III
金斗化	1920	제주시	高卒	D	1950	2,000	1.8	7	개인경영	I
金文奉	1953	조천	同志社大卒	C	1936	200	0.8	7	개인경영	IV
金敏永	1945	제주시	大學中退	C	1964	500	0.78	11	개인경영	IV
金祥洙	1920	제주시	關大二高卒	C	1963	2,400	14.9	23	주식회사	II
金聖大	1940	제주시	關西學院大卒	D	1976	500	45	12	주식회사	III
金成洙	1938	구좌	大阪經濟大中退	G	1970	250	24	4	주식회사	III
金秀玉	1942	제주시	韓國航空大中退	C	1970	500	0.6	9	개인경영	III
金秀晃	1942	서귀포시	同志社大卒	C	1957	1,900	25	37	주식회사	IV
康淳琦	1931	제주시	高卒	C	1938	1,000	3.5	21	주식회사	II
金良尙	1945	제주시	明治大卒	H	1978	500	3.9	28	주식회사	II
金良維	1945	제주시	大阪經濟大卒	G	1971	4,800	30	8	주식회사	III
金英行	1956	제주시	城東工高卒	C	1980	1,000	0.25	2	개인경영	I

258 제일 재주인의 기업가 유형별 경영특성

이름	출생 년도	출신지	학력	업종	설립 년도	자본금	연간 매출액	종업원 수	경영형태	유형
金順倍	1923	한림	帝國商業高卒	G	1980	1,000	23	7	주식회사	II
金靜順	1932	표선	靜岡市立第一中退	C	1936	500	5	8	주식회사	II
金昌海	1921	조천	舊制難波商業學校卒	C	1930	2,000	2	20	주식회사	II
金哲三	1944	제주시	同志社香里高卒	D	1939	1,000	4.5	8	주식회사	III
金致榮	1948	표선	上宮高卒	C	1933	1,000	2.5	10	주식회사	III
朴基東	1954	제주시	大阪經濟大卒	C	1967	1,000	7	25	주식회사	IV
朴東植	1924	애월	中央高等工業學校卒	F	1981	200	1	9	주식회사	III
朴東進	1930	서귀포시	中央大卒	C	1959	3,500	21.6	120	주식회사	II
朴善久	1933	제주시	大阪大卒	B	1936	1,000	5.5	38	주식회사	II
朴晶禧	1945	제주시	早稻田大卒	C	1967	4,500	34	122	주식회사	IV
白國桐	1933	제주시	高卒	C	1936	2,000	123	36	주식회사	III
邵耕治	1945	조천	大阪市立生野工高卒	E	1978	500	4	7	주식회사	II
宋龍澤	1932	남제주군	大阪學院大卒	G	1935	2,000	5	7	주식회사	IV
安富松	1944	애월	京都大卒	C	1972	700	7	35	주식회사	IV
安在祐	1915	표선	城東商業學校卒	C	1937	9,800	25	85	주식회사	III
梁斗京	1938	한림	建國高卒	C, I	1921	500	35	70	주식회사	IV
梁昌秀	1922	조천	高卒	C	1947	1,000	3	35	주식회사	III
梁泰幸	1949	조천	近畿大卒	C	1967	200	3	16	주식회사	IV
吳南興	1936	남원	高卒	C	1937	3,000	8.2	11	유한회사	II
吳斗京	1931	구좌	關西大卒	C	1949	3,000	8	29	주식회사	II
吳文弼	1930	한림	大阪市立大卒	D	1964	3,500	100	25	주식회사	II
吳永守	1954	제주시	關西大卒	D	1954	1,600	27	32	주식회사	IV
吳辰成	1928	제주시	關西大卒	D	1954	1,600	27	32	주식회사	II
李根培	1932	조천	關西大卒	D, H	1961	600	2.1	3	유한회사	II
李純安	1939	대정	關西大卒	G, I	1953	2,000	103	110	주식회사	IV
李元主	1950	구좌	大阪工業大中退	C	1933	500	5	10	주식회사	IV
李太勳	1923	제주시	舊制商業學校卒	C	1933	400	3	25	주식회사	III
李平年	1917	중문	高小卒	C	1955	100	3	15	주식회사	II
任永燦	1932	구좌	中央大中退	C	1972	2,000	15	100	주식회사	III
任忠良	1941	한경	法政大卒	D	1973	150	26	7	주식회사	II
林泰連	1925	대정	大阪興國商高卒	C	1953	2,000	5	22	주식회사	II
林幸範	1935	대정	近畿大卒	C	1953	2,000	5	22	주식회사	IV
趙泰華	1932	한림	大阪市立天王寺商高 卒	D	1935	200	6.5	11	주식회사	II
車尙哲	1951	한림	成器高卒	C	1980	1,000	6.5	37	개인경영	IV
車齊喆	1952	한림	建國高卒	I	1981	800	5	11	주식회사	IV
崔方元	1954	한경	泉尾工業高卒	C	1981	1,000	3	12	개인경영	III
韓健三	1941	한림	濟州農業高卒	I	1984	500	18	23	주식회사	III
韓東舊	1926	한림	舊制商業學校卒	IG	1930	1,000	5	7	주식회사	II
玄英廈	1936	제주시	浪速短大卒	C	1982	1,000	5.4	25	주식회사	II
玄在玉	1923	서귀포시	舊制中學校卒	C	1958	1,000	4	16	주식회사	II
洪鍾寬	1938	한림	法政大卒	C	1982	1,000	12	80	주식회사	II

주 1: A(농림·수산·광업), B(건설), C(제조), D(상사·도매), E(소매·판매), F(금융·증권·보험), G(부동산), H(운수), I(정보서비스)

주 2: I 유형(생업+개인경영), II 유형(생업+법인경영), III 유형(사업+전향), IV 유형(가업+계승)

자료: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등에서 필자 조사 작성.

A Study on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by Types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Ko, Kwang-Myong

(Teachers College,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by types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founded their own company to earn their living in the period of economic growth in Japan. The study found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case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by the generational shift after the year of 1970.

Second, first-generation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managed their business with a small capital bu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with a large-scale capital increased after the change of the type of management.

Third,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mainly did their own business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industry like as shoes, bags, plastics and needle work. Recently,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changing the business type and diversifying the management.

Forth, the sales of business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was low because of the small scale business in 1960s but sales increased every year by expanding the company.

Fifth, most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manage the small-scale private business and recently changed their management type into the corporations with the trend of expanding the business scale.

Key Words: People from Jeju Island in Japan, Entrepreneur Type, Management Characteristic